특 집

‘녹두장군’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

- 한국과 일본의 근대를 읽는 사례로서 -**

박맹수***

〈차 례〉

1. 머리말
2.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시대
3.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생애
4.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상호인식
5.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
6. 맺음말 -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사상

【국문초록】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가 공통적으로 살았던 19세기 말은 ‘서세

* 이 논문은 2013년 11월 8일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3회 영호남 4개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대학교 ‘주산학술재단’ 해외 파견교수 지원기금에 의해 연구된 논문이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일본 교토대학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초빙학자로 체재하는 동안, 행정적인 도움은 물론, 필자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신 동 대학원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와, 1997년부터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자극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명예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

동점’ 즉, ‘유럽의 제 3세계 지배, 문화 파괴와 말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그리고 자기들 방식의 강요, 착취, 억압, 세뇌’가 조선과 메이지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대였다.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는 나라도 다르고, 살다 간 지역도, 삶의 궤적도 달랐지만 서로 닮은 부분이 많다. 시골의 가난한 평민(농민)으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가장 낮은 자리의 민중들이 겪는 고통에 눈을 돌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잘못된 국가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중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굽힘이 없이 그 실천을 계속한 것도 똑 같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바로 ‘공공(公共)적 삶’ 다시 말해 ‘공공하는 생애’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에 대해 첫째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둘째 두 사람의 생애, 셋째 두 사람의 상호인식, 넷째 두 사람의 ‘공공적’ 삶의 특징 순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두 사람의 ‘공공적 삶’을 통해 ‘우주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봉준의 ‘공공적 삶’은 동학 입도로부터 시작되는데, 전봉준은 동학의 ‘수심경천’과 ‘보국안민’ 사상에 특별히 공감하여 입도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국안민’이야말로 전봉준의 ‘공공적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상이었다. ‘보국안민’에 근거한 전봉준의 ‘공공적 삶’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삼례집회는 ‘교조신원운동’의 일환으로써 합법적 청원운동을 통해 동학이 내세운 ‘보국안민’ 즉 ‘국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민중들의 생명, 생활, 생업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보국안민’의 실현은 전봉준이 목숨을 걸고 실현하고자 했던 ‘공공적 삶’의 목표였으며, 그것은 1982년 11월의 삼례집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94년 1월의 고부농민봉기, 1894년 3월의 제1차 동학농민혁명, 동년 9월의 제 2차 동학

농민혁명 단계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한편, 다나카 쇼조는 20대 때부터 이미 영주나 현령의 폭정에 항거하여 개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8세 때에는 "일신으로 공공에 진력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공', 즉 사회와 사회 여러 사람을 위한 일에 뛰어들었다. 특히 '자유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역 주민의 생명, 생활과 생업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즉 젊은 시절부터 다나카 쇼조는 '공공적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의 결정판은 그가 중의원이라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에 일어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 해결에 참여하면서부터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는 '문명개화' 노선을 지향하고 있던 메이지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가 광역화하고 장기화되었는데, 다나카 쇼조는 1901년에 중의원 직을 사직할 때까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메이지 일본 정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메이지 일본 정부는 다나카 쇼조의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자 다나카는 중의원 직을 사직하고, 천황에게는 목숨을 건 '지키소'를, 그리고 피해민과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며 피해민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72세의 나이로 피해민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계속하다가 서거했다. 그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력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참된 문명은 산을 황폐하게 하지 않으며, 강을 더럽히지 않으며, 마을을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어: 전봉준, 동학, 다나카 쇼조, 공공적 삶, 우주적 공공성

1. 머리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가열화하기 시작했던 유럽의 제 3세계 지배, 문화 파괴말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그리고 자기들 방식의 강요, 착취, 억압, 세뇌---이런 과정에 대해 계속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면서, 자기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그 특수성 안에 있는 세계일가주의, 사해동포주의적인 보편적 가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던 사상가들의 맥락이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다.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 새 세계관 제출의 노력은, 비록 소박하고 투박하더라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다. (중략) 아시아든, 라틴아메리카든, 아프리카든, 아랍이든, 제 3세계에는 많이 있다. 특히 동양세계는 큰 전통적 지혜와 오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와 생명계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1)]

전봉준(全琫準, 1855-1895)과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서구문명(西歐文明)의 동점(東漸)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세기에 각각 조선과 메이지 일본에서 태어나 살다간, '근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운동가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는 특히 "유럽의 제 3세계 지배, 문화 파괴말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그리고 자기들 방식의 강요, 착취, 억압, 세뇌"에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면서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와 생명계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

1) 김지하, 「인간 해방의 열쇠인 생명」, 『일하는 하늘님』,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84, P. 98.

야기를 해 온" 인물이었다.

필자는 지난 30년 동안 19세기 조선의 '근대' 사상을 대표하는 동학(東學) 사상과 그 동학의 사상과 조직에 기반을 두고 전개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연구에 몰두해 왔다. 특히, 1995년 7월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문학부 소속 후루카와강당(古河講堂)에서 방치된 채 발견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문제를 계기로[2], 일본 각지를 답사하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 도중인 지난 2009년 11월에 일본의 저명한 세계적 철학운동 단체인 '교토포럼'의 초청을 받아 「동학의 개벽사상과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농민군 기율의 엄정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일본 '근대'의 사상가가 있다는 소개를 받았다. 그 인물이 바로 다나카 쇼조이다.

다나카 쇼조를 알게 된 것은 필자에게 크나큰 충격이자 일대 사건이었다. 왜냐면, 메이지(明治) 일본인들은 오로지 조선의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하고, 동학농민군 학살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민군 규율의 엄정함을 높게 평가한 메이지 '근대' 일본인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필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간 가지고 있던 상식이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후, 다나카 쇼조에 관한 기초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나카 쇼조 연구에 있어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구마모토대학(熊本大學)의 코마츠 히로시(小松裕) 교수[3]와 '교토포럼'

---

2) 홋카이도대학 문학부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성과가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 봉환을 위한 학술연구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계획』, 전라남도 진도군, 2005.

3) 코마츠 히로시(小松裕) 교수는 일본 내에서 다나카 쇼조 연구에 있어 최고

에서 해후하게 된 것은 망외(望外)의 기쁨이었으며, 오랜 기간 다나카 쇼조의 사상에 주목해 온 홋카이도 오타루시(小樽市) 거주의 '민중 철학자' 하나자키 코헤(花崎皋平) 선생님[4]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다나카 쇼조의 고향 사노시(佐野市)에서 다나카 쇼조에 관한 연구 및 다나카 쇼조의 사상과 실천을 현대에 되살리기 위한 시민운동단체인 '다나카 쇼조를 현대에 되살리는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다 스스무(飯田 進) 선생과 2010년 8월,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인 전북 전주(全州)에서 해후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외, 다나카 쇼조 관련 문헌을 읽어 감으로써 그에 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다나카 쇼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어 갔다는 점이다.

"다나카 쇼조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1894년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 같은 저명인사를 필두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 확립, 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다나카 쇼조는 동학농민군의 기율의 엄정함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었을까?" "젊은 시절부터 거듭된 투옥 생활 속에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小松裕、『田中正造—二一世紀への思想人』、東京: 筑摩書房、1995.
小松裕、『田中正造の近代』、東京: 現代企畫室、2001.
小松裕、金泰昌 編、『公共する人間 4 田中正造』、東京: 東京大學出版會、2010.
小松裕、『未來を紡ぐ思想人 田中正造』、東京: 岩波書店、2013.

4) 철학자 하나자키 코헤(花崎皋平) 선생님은 아이누 민족, 재일동포, 부락민 등 일본 내 차별받는 민중 문제를 비롯하여 반전평화운동 등 시민운동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철학을 해 오신 분이다. 다나카 쇼조에 관한 최근의 저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花崎皋平、『田中正造と民衆思想の継承』、東京: 七つ森書館、2010.

도 다나카 쇼조는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민중의 편에 설 수 있었을까? 등등. 그러던 차에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가공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다. 진도 8을 넘는 '동일본 대진재'가 일어나 2-30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동일본의 여러 해안도시를 강타하고, 그에 따라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전원이 모두 상실되어 원자로가 잇따라 폭발하는 대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한살림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필자에게 '동일본 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다가왔다. 때마침 '3.11' 직후에 코마츠 히로시 교수가 다나카 쇼조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는 저서를 출간했다. 그 책에서 코마츠 교수는 "참된 문명은 산을 황폐하게 하지 않으며, 강을 더럽히지 않으며, 마을을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眞の文明は、山を荒らさず、川を荒らさず、村を破らず、人を殺さざるべし)"고 역설했던 쇼조의 말을 널리 소개하고 계셨다. 코마츠 교수의 저서를 접한 이후, 다나카 쇼조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고 그간의 연구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근무하고 있는 대학 측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1년간 연구년 혜택을 받게 되어 망설임 없이 도일(渡日)을 단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다나카 쇼조의 생탄지(生誕地) 코나카무라(小中村)를 비롯하여, 그가 거주했던 저택,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야나카마을 유적(谷中村遺跡)' 등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5]를 얻었고, 헌 책방에서 다나카 쇼조의 전집(全集)도 구입할

5) 다나카 쇼조의 생탄지가 있는 일본 도치기현(栃木縣) 사노시(佐野市) 일대 답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진력해 주신 나라여자대학의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님,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님, 오사카시의 오니시 히데나오(大西秀尙) 선생님, 현지 안내를 맡아주신 사노시의 이다

수 있었다.

다나카 쇼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의 삶과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생애가 오버랩되는 경험을 했다. 비록 나라도 다르고, 살다간 지역도, 삶의 궤적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무언가 공통적인 지향(志向)을 가지고 19세기말이라는, 다시 말해 한일 두 나라의 '근대'라는 시대를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을 비교 연구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에서는 19세기말의 조선을 살았던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과, 역시 19세기 메이지 일본을 살면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足尾銅山鉱毒事件)'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다나카 쇼조의 삶을 공공성(公共性)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6]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가 살았던 시대, 즉 19세기 말의 조선과 19세기 말 메이지 일본에 대

스스무(飯田進) 선생님께 지면으로나마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다나카 쇼조 관련 유적과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사건' 관련 유적지에 대한 안내서로서는 다음의 책이 가장 자세하다.
布川了、堀內洋助、『改正 田中正造と足尾鉱毒事件を歩く』、東京: 隨想舍、2009.

6) 이 글은 필자의 아래와 같은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朴孟洙、「東學と田中正造」,『人環フオーラム』31、京都大學大學院 人間環境學研究科、2012.
박맹수,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국제학술대회자료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2013.
한편, 다나카 쇼조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근대일본의 사상가이자 운동가이다. 따라서 한글로 된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은 단 세 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코마츠 히로시, 「공공인간, 다나카 쇼조의 사상」, 『씨알철학과 공공철학의 대화: 모색』, 도서출판 나녹, 2010.
오니시 히데나오, 「다나카 쇼조와 최제우 사상의 비교연구」, 『차세대 포럼: 장래세대가 창조하는 동아시아와 한국학』,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3.

해 개관한다. 둘째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생애, 즉 출생에서 서거까지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 양자의 상호인식, 즉 전봉준이 바라본 일본과 다나카 쇼조가 바라본 동학에 대해 개관한다. 넷째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일생을 바친 다나카 쇼조의 실천적 삶에서 읽을 수 있는 '공공성(公共性)'에 대해 알아본다. 다섯째는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실천적 삶과 운동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대' 사상을 '우주적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시대

주지하듯이, 1855년에 태어난 전봉준과 1841년에 태어난 다나카 쇼조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있다. 그런데 전봉준은 41세인 1895년에, 다나카 쇼조는 72세 때인 1913년에 서거한다. 따라서 양자가 함께 살아간 시대는 대체로 19세기 말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그렇다면 양자가 함께 살았던 19세기 말이라는 시대는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닌 시대였을까?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유럽의 제 3세계 지배' 즉 서구문명의 동점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대였으며, 그 중에서도 19세기는 그 서구문명이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대였다. 예컨대, 19세기 조선과 일본에서는

> 실증 위주 또는 감각 위주, 즉 가시성, 가촉성, 또는 증명 가능성, 실현 가능성 --- 이것만을 과학의 한계로 두고, 또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인간의 모든 이해 관계와 인간의 모든 현재 통용되는

> 사고 ---이것을 중심으로 일체 생명을 보아 버렸을 때,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인 여러 가지 사태들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의 대표적인 사회구조적 형태나 문화, 문명의 형태가 서구를 대표하는 물질 위주의, 인간 위주의, 검증 가능한 과학 위주의, 또는 현실적인 필요나 공리성(功利性) 위주의 기술관 --- 이런 것과 전부 결합되어 있는 소위 '우상숭배(崇拜)', '물신숭배' 따위가 바로 오늘날 서구문명의 기본 구조가 아닌가.[7]

라는 지적과 같이, "물질 위주의, 인간 위주의, 검증 가능한 과학 위주의, 또는 현실적인 필요나 공리성 위주의" 서구문명이 조선과 일본, 중국 등지로 그 지배를 확대하기 위한 동점(東漸) 현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8]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시대는 바로 이 같은 '유럽문명의 동아시아 지배', 즉 '서세동점'으로 대표되는 시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 두 사람은 이 같은 '서세동점'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려 했을까?

먼저, 전봉준이 살았던 19세기 말 조선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19세기 말 조선에서는 '서세동점'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상과 운동이 일어나 각축하면서 '서세동점'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우선, '서세동점'의 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세력은 조선왕조의 젊은 양반 관료들과 실학자의 후손 등이었다. 김옥균과 박영효를 비롯한 양반 관료, 북학파(北學派)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등이 손잡고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던 개화사상(開化思想), 이들 개화파들이 주도한 1884년의 갑신정변과 1894년의 갑오개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재야(在野)의 양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과 그 운동은 서구문명의 제

---

7) 김지하, 앞의 책, pp. 83-84.

8) 이러한 서구문명의 동점 현상을 일러 한자의 사자성어로는 '서세동점(西勢東漸)', 영어로는 'Western Impact'라 부른다.

국주의적이며 침략적 성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조선왕조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자학(朱子學)의 수호를 통해 서세로부터 조선을 지키고자 했다. 이들 개화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은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지만, 양자 모두 지배엘리트층이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양자에 대해 민중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사상이 바로 동학(東學) 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은 1860년 수운 최제우가 창도하였는데 그는 몰락양반의 서자로서 평민이나 다름없는 신분이었고, 그 덕분에 동학은 창도 초기부터 민중 층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봉준은 동학이 창도된 지 2-30년이 흐른 뒤인 1880년대 후반(또는 1890년대 초반)에 동학에 입도(入道)하여 1892년경에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동학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가 주목한 동학사상은 개화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과는 달리 서구문명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동학의 주요경전인『동경대전(東經大全)』에는 서세=유럽문명에 대한 동학의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

> (동학과 서학이 - 인용자 주) 시대의 운수를 타고난 것은 하나요, 도도 (동학과 서학은 - 인용자 주) 같지만, 이치는 다르니라.(運卽一 道卽同 理卽非也)

동학은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운수' 즉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동학과 하나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학과 그 길이 같지만, '이치' 즉 그 보편적인 진리가 구현되는 시공간이라는 구체적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서세=유럽문명이 지닌 보편성은 긍정하면서도, 시공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구

9) 최제우 지음, 박맹수 역,『東經大全』,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 59.

체적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편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관점을 표방함으로써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개화사상이나 위정척사사상과는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서세=유럽문명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가운데, 민중 층을 기반으로 삼아 성립된 동학은 불행하게도 개화 사상가 및 위정척사 사상가 양 측의 견제와 탄압 속에서 공인받지 못했다. 특히 동학사상과 동학의 조직을 기반으로 전봉준이 최고지도자가 되어 전개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개화와 척사 양 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으며, 그 위에 다나카 쇼조가 살았던 메이지 일본이 파견한 일본군에 의해 대실패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전봉준이 지도한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하고, 동학농민군을 대량 학살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메이지 일본, 그 메이지 일본은 '서세동점'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을까? 메이지 일본 정부의 행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주지하듯이 메이지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천황제 국가로 재출발하는 동시에, 부국강병(富國强兵)과 문명개화(文明開化)를 기치로 한 서구적 근대화 노선을 표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 일본은 미개한 조선과 청조 중국과는 함께 갈 수 없고, 근대화를 앞서서 달성한 서구와 함께 간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의 노선을 내세움으로써, 조선과 중국에 대한 메이지 일본인들의 차별과 멸시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1880년대 메이지 일본에는 서구의 자유민권사상이 유입되어 1881년에 국회가 개설되고, 각지에서는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의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10]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바람과 더불어 메이지 일본의 문명개화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던 민중들의 저항도 거세게 일

10) '자유민권운동'이 한창이던 1880년대에 다나카 쇼조 역시 '자유민권운동'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884년 치치부(秩父) 곤민당(困民党)이 주도한 치치부 봉기였다. 하지만 치치부 곤민당의 봉기는 1주일 만에 진압되고 그 주모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어 실패로 귀결된다.[11] 1889년에는 '대일본제국헌법'이 반포되고, 1891년에는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출범하는 등 메이지 일본은 근대국가의 면모와 체제를 착실하게 갖추어 갔다.

그러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메이지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기치 아래 이웃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침략주의적 외교 정책을 표방하였다. 특히 '정한론(征韓論)'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에 대한 침략적 팽창정책은 1875년의 '운양호사건(雲揚号事件)'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1876년에는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約)' 체결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조선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청국과 강하게 대립하기 일쑤였다.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은 바로 조선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청국과의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써, 메이지 일본은 향후 조선에 대한 침략적 팽창정책을 성공리에 전개하기 위해서는 청국과의 전쟁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884년 이후 전쟁 준비를 위해 일본 민중에 대한 가혹한 억압과 수탈 정책을 통해 군비를 확장해 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은 바로 메이지 일본이 오랜 기간 준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쟁이었다. 메이지 일본 최초의 대외 침략전쟁인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군사적으로 청국에 대해 승리했지만 조선의 동학농민군 수만 명을 비롯하여 청국 민중, 그리고 타이완(台湾)에서도 수만 명의 원주민 등 아시아 민중을 대량 학살하는

11) 치치부 곤민당의 봉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가 된다.
秩父事件研究顯彰協議會編、『ガイドブック 秩父事件』、東京: 新日本出版社、1999.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이렇게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대해 침략전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 민중을 대량 학살하던 시기에 다나카 쇼조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외 침략전쟁 및 아시아 민중의 대량 학살이라는 메이지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온 몸으로 겪었다. 한편, 다나카 쇼조가 처음 국회의원인 된 해가 1890년인데, 이 해는 바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사건'의 피해가 현재화(顯在化)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1891년 12월에 쇼조는 국회에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문제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후 쇼조는 광독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직하는 1901년까지 6기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 기간 내내 그는 피해 민중의 구제를 위한 활동에 헌신하게 된다.

3.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생애

먼저 전봉준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봉준은 1855년에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당촌 마을의 천안 전씨(天安 全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철로, 자는 명숙, 동학농민군들 사이에서는 '녹두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전라도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구전에 의하면, 전봉준은 어려서 금산사가 있는 김제 원평 부근에서 서당에 다녔다고 전한다.[12] 동학농민혁명 실패 뒤에 체포되어 진술한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에

12) 전봉준이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원평은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군량 조달 등의 책임을 맡았던 김덕명(金德明) 대접주의 출신지이자, 동학농민혁명 최후 전투의 하나인 '구미란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원평에 가면 전봉준이 다녔던 서당 터를 확인할 수 있다.

따르면, 거주지를 전라도 태인현(泰仁縣)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동곡에서도 거주한 것이 확실하다. 동곡은 원평에서 지근거리에 있다. 또한 동 공초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수년 전, 즉 1880년대 후반, 그의 나이 30대 중후반 경에는 태인 산외면 동곡에서 고부군 이평면 조소리(鳥巢里)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창에서 태어나 김제 원평, 태인 동곡을 거쳐 동학농민혁명 수년 전에 고부 조소리에 자리를 잡은 전봉준이 각지를 전전(轉々)하면서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서세동점'과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 즉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는 민초들의 신산(辛酸)한 삶 바로 그것이었고, 이 같은 시대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집대성한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문인 '동학'이 1880년대 후반부터 전라도 일대(전주, 삼례, 익산, 고산, 부안, 태인, 고부, 정읍, 무장)에 널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봉준은 고부 조소리로 이사를 오면서 동학에 입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당시 조선왕조 지배층이 이단사술(異端邪術)로 배척, 탄압하는 동학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의 일단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13]

문: 소위 동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이며 어떤 도학인가?
(所謂東學 何主義 何道學乎)
답: 마음을 지켜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안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守心 以忠孝爲本 欲輔國安民也)

문: 너도 역시 동학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인가?
(汝亦酷好東學者耶)

13)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 하, 탐구당, 1971, p. 534.

답: 동학은 수심경천의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한다.
(東學是守心敬天之道 故酷好也)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수심경천(守心敬天)'의 도인 동학은 전봉준에게는 서세동점에 시달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조선의 민중들을 건질 '새로운 도학'이었기에 그는 동학을 '혹호(酷好; 대단히 좋아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동학에 입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888-1889년 경, 적어도 1890-1891년 경에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이 동학 교단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1892년 7월 경부터 준비되어 전개되기 시작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단계부터이다. 구체적으로는 1892년 음력 11월초부터 전개된 삼례집회에서 전봉준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였다.[14] '교조신원운동'은 동학 교단이 중심이 되어 '교조의 신원(동학 공인 요구), 지방관의 가렴주구 금지, 척왜양'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내걸고 전개되었는데, 전봉준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열강과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반대하는 '척왜양' 운동을 주도했다.[15] 삼례집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전봉준은 1893년 2월의 서울 복합상소와,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충청도 보은집회에 호응하기 위하여 그가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원평을 중심으로 동학 신자 등을 결집하였다. 그러나 '교조신원운동'은 조선왕조 지배층의 강경 탄압책과 외국 열강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교조신원운동 좌절 이후, 전봉준은 고부 조소리에 칩거하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惡政)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16]했지

14) 崔炳鉉, 『南原郡 東學史』, 1924, pp. 3-8.
15) 최병현, 위의 책, pp. 3-8.
16) 『전봉준공초』에 따르면, 1893년 11월에는 고부군수에게,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감영의 전라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투옥당한 후 퇴출당했

만 번번이 거절당하였고, 진정서를 제출한 대표자들과 함께 탄압을 받았다. 이에 전봉준은 '사발통문 모의'를 해서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으로 상징되는 조선팔도의 악정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 1894년 음력 1월 10일, 익산 군수로 전임 발령이 난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눌러 앉게 된 날, 전봉준은 무력을 통한 '악정'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고부농민봉기를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고부농민봉기 역시 2개월 여에 걸친 장기간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자신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남은 5-60명의 동학 신자들과 함께 고부로부터 이웃 무장(茂長)으로 피신하여, 수천 명의 연비(聯臂; 자신이 동학에 입도시킨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 1894년 음력 3월 21일에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봉화를 힘차게 올렸다. 학력과 사회적 경력이 보잘 것 없는 전봉준은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심경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당겼던 것일까? 그리고 혁명 실패 뒤에는 어떤 심경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 전봉준이 꿈꾼 세상, 그리고 그가 남기고자 했던 이상(理想) 등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전봉준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는 다나카 쇼조의 삶에 대해 약술한다. 다나카 쇼조는 1843년에 현재의 일본 도치기현(栃木縣) 사노시(佐野市) 코나카무라(小中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켄자부로(兼三郎)였다. 그의 집안은 '나누시(名主)'로 불리는 중농(中農) 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민 집안으로, 다나카 자신도 1859년에 '나누시'로 임명된다. 21세 때인 1863년에 다나카는 영주 '롯카쿠가(六角家)'의 무리한 수탈에 반대하는 개혁운동을 전개한 바 있었는데, 메이지유신이 일어나던 1868년에 개혁운동을

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26.)

주도했다는 이유로 '롯카쿠가'에 의해 체포되어 수개 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그해 11월에 석방되지만 영외로 추방당하는 수난을 당한다. 1869년에는 이름을 쇼조(正造)로 개명하며, 1870년에는 이와테현(岩手縣)의 하급관리가 되어 가난한 농민들의 신산한 삶은 물론이고, 식량난에 굶주리는 농민들의 피폐된 삶을 직접 체험하였다. 1871년 6월에 상사(上司) 기무라 신하치로(木村新八郎)를 암살했다는 무고로 체포되었다가 1874년 4월에야 가까스로 무죄 석방되어 고향인 코나카무라로 돌아오게 된다.[17] 이처럼 젊은 날의 쇼조는 여러 차례에 걸친 투옥 생활과 함께 민중들의 신산한 삶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나날을 보냈다.

1878년에 다나카 쇼조는 마침내 "일신으로 공공에 진력하겠다(一身以て公共に盡くす)"는 결의를 굳히고 도치기현 제 4대구 제 3소구 구회(區會) 의원이 되었고, 1880년 2월의 보결선거에서는 도치기현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해 11월에는 국회개설 건백서를 원로원에 제출하였다. 이 무렵 다나카는 도치기현을 대표하는 '자유민권운동가'였다고 한다.[18] 1884년 8월에는 도치기현 현령 미시마(三島通庸)의 폭정에 저항하다가 구금되어 3개월 만인 12월에 석방되었다. 이때가 세 번째 구금생활이었다. 1890년 7월에는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에서 도치기현 제 3구 중의원(衆議院) 의원으로 당선, 이후 1901년에 사직하기까지 연속 6기에 걸쳐 당선되었다. 그러나 다나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개월여 뒤인 그해 8월, 아시오 구리광산(足尾銅山)으로부터 흘러나온 광독(鉱毒)이 아시오 산의 수계(水系)를 이루고 있던 와타라세강

17) 다나카는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실시된 메이지 일본의 신정(新政)에 대해 당황하여 마치 어린이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사뮤엘 스마일즈의 『서국입지편(西國立志編)』 등을 접하였고, 출옥하고 나서는 열심히 학습하여 서양 근대사상에 접하였다.(小松裕、金泰昌 編, 앞의 책, p. 286.)

18) 小松裕、金泰昌 編、위의 책. p. 286.

(渡良瀬川)의 대홍수로 인해 유역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다나카 쇼조는 1891년 제 2의회에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문제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을 계기로 죽을 때까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사건'에 따른 메이지 일본 정부의 책임 추궁과 피해자 구제에 헌신하기에 이른다. 1891년 이후 다나카 쇼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문제'를 거론하며 메이지 일본 정부를 추궁했지만 정부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시오 구리광산'이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9]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가 현재화되고 있을 무렵인 1894년에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청일전쟁은 메이지 일본정부 최초의 대외 침략전쟁이었는데, 당시 메이지 일본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자 미개한 청조 중국과 싸우는 '문명 전쟁'이라고 선전했다.[20] 1896년에는 와타라세 강의 대홍수가 반복되어 광독 피해가 도치기,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이바라키(茨城), 치바(千葉), 도쿄(東京) 등 1부 5개현에 이르렀다. 이에 다나카 쇼조는 군마현 다테바야시(館林市)에 있는 운룡사(雲龍寺)에 광독문제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시오 구리광산' 광업정지 청원운동을 지도하기에 이르렀고, 1897년 3월부터는 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상경청원운동(押出し運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상경청원운동'은 1900년까지 연 4회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제 4회 때인 1900년 2월 13일의 '상경청원

19) 씨알사상연구소 편, 『씨알철학과 공공철학의 대화: 모색』, 도서출판 나녹, 2010, p. 227.

20) 청일전쟁 당시, 러일전쟁 때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반전평화사상가로 유명해지는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마저도 「의전론(義戰論)」이라는 글을 발표할 정도로 메이지 일본 정부의 선전에 현혹되어 있었다.

운동'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메이지 일본정부에 의해 대탄압을 받았다.[21] 이에 다나카 쇼조는 「망국에 이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곧 망국이란 요지의 질문서(「亡國に至るを知らざればこれ卽ち亡國の儀につき質問書」)」를 정부에 제출, 이듬해인 1901년에는 광독 피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중의원 의원을 사직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목숨을 걸고 천황에게 '지키소(直訴)'를 하여 광독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관리 모독죄로 또 다시 체포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약 1개월 여를 복역했다. 다나카 쇼조의 '지키소'를 계기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문제'는 일거에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종교인, 지식인, 여성,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1903년 메이지 일본정부는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피해 문제'를 홍수문제로 바꿔치기 하여 피해가 가장 심한 야나카무라(谷中村) 일대를 유수지화(遊水池化)하려는 계획을 내세웠다. 다나카 쇼조는 그것에 반대하였다.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에는 야나카무라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거처를 야나카무라 안으로 옮겼다. 1907년 1월 26일 일본 내각이 야나카무라에 대해 토지수용법 적용 인정 공고를 통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려는 방침을 내세우자, 2월 4일 피해민들을 중심으로 아시오 구리광산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최후까지 야나카무라에 잔류한 16호의 피해민들과 함께 끝까지 메이지 일본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부터는 홍수가 빈번한 와타라세 강의 치수(治水)를 위한 하천 조사를 개시하였다. 1913년 8월 2일 하천 조사에 필요한 자

21) 이것은 '가와마따사건(川俣事件)'이라 불리는 것으로, 도치기현에서 도쿄로 가는 도중에 있는 토네가와강(利根川) 북쪽 연안의 가와마따(川俣)에서 상경 도중에 있던 광독 피해민들을 메이지 일본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 수백 명을 체포하고 수십 명을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금 조달을 위한 행각을 계속하다가 쓰러져 동년 9월 4일 서거하게 된다.

4.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상호인식

전봉준은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교조신원운동[22] 단계부터 동학 교단 내의 유력한 지도자의 1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봉준이 지도자로 부상한 삼례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척왜양(斥和洋)'이라는 반외세적 요구가 집회의 주된 요구로 등장하였고, 그 운동의 주도자 가운데 1인이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실이다. '척왜양'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배외주의(排外主義) 또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동학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등장한 '척왜양', 특히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 단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일관되게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척왜양'이 단순한 배외주의적 요구이거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가 아닌, 당시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즉 근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창되어진 열린 민족주의적 요구였다는 점을, 전봉준의 활동과 그의 진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음력 3월 21일의 제 1차 봉기(무장기포)와 음력 9월 15일 경의 제 2차 봉기(삼례기포)로 대별되며, 1차 봉기는 주로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을 무력을

22) 이것을 일러 삼례집회(參禮集會)라 부른다. 삼례집회는 1892년 음력 11월 초에 시작되어 약 1개월 뒤에 공식 해산했으나, 일부 해산하지 않은 동학지도자 및 신자들에 의해 이듬해 1월까지 산발적인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통해 제거하고자 했던 반봉건적 성격의 봉기이며, 2차 봉기는 일본군의 '불법적인' 경복궁 점령(음력 6월 21일)으로 초래된 조선의 '국난'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군 구축을 명분으로 봉기한 항일 봉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2차 봉기와 관련하여 전봉준의 명확한 진술이 남아 있다. 아래 인용한다.[23]

> 문: 다시 기포(제 2차 봉기-인용자 주)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 (更起包 何故)
> 답: 그 후 들으니, 귀국(貴國-일본; 인용자 주)이 개화(開化-내정개혁; 인용자 주)를 한답시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 알림도 없고, 또 격서(激書-선전포고; 인용자 주)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성(都城-서울; 인용자 주)으로 쳐들어와 야반에 왕궁(王宮-경복궁; 인용자 주)을 격파하여 주상(主上-고종 임금을 말함; 인용자 주)을 경동케 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골 선비와 일반 백성들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청문(聽聞)하고자 하였다.
> (其後聞則 貴國称以開化 自初無一言半辭伝布民間 且無激書率兵入都城 夜半擊破王宮 驚動主上云 故草野士民等 忠君愛國之心不勝慷慨 糾合義旅 与日人接戰 欲一次請問此事實)

전봉준은 일본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일언반구 알린 일도 없이 제 멋대로 남의 나라의 내정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한 조선왕조 정부에 대해 '격서' 즉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임금을 포로로 삼은 사실에 대해 '충군애국'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왜 불법을 저지르는가를 '청문'하고자 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전봉준이 당시의 만국공법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읽었

2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29.

다는 증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의 진술 내용은 그 어디를 읽어보아도 당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전혀 없다. 일본과 관련된 전봉준의 진술은 또 있다.[24]

문: 재차 기포(제 2차 봉기; 인용자 주)는 일본군이 왕궁을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봉기했다고 하였는데, 다시 봉기한 후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였는가?
(再次起包 因日兵犯闕之故再擧云 再擧之後 於日兵欲行何擧措耶)
답: 왕궁을 침범한 이유를 따지고자 하였다.
(欲詰問犯闕緣由)

문: 그렇다면 일본군은 물론이고,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도 모두 몰아내려고 하였는가?
(然則 日兵与各國人留住京城者 欲盡驅逐耶)
답: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은 다만 통상만을 할 뿐인데, 일본인만은 유독 군대를 거느리고 경성에 주둔하는 까닭에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不然 各國人但通商而已 日人則率兵留陣京城 故疑訝侵掠我國境土也)

위 진술에서 전봉준은 2차 봉기를 한 후에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법으로 왕궁을 침범한 일본군의 행위를 따지고자 하였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전봉준은 특히 일본만이 오직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까닭은 조선의 국토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일본군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2차 봉기를 단행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메이지 일본은 정부

2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38.

건 군부건, 이토 히로부미를 필두로 한 내각이건 자유당(自由党) 등을 필두로 하는 야당이건, 후쿠자와 유키치로 대표되는 지식인이건 일반 민중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일본군의 조선 출병과 조선왕궁 점령을 지지한 바 있다. 예컨대,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1894년 음력 6월 21일(양력 7월 23일) 미명(未明)에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한 메이지 일본인은 사실상 없었다.[25]

다음으로,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여 안으로는 조선왕조의 악정을 개혁하고, 밖으로는 메이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침략 행위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다나카 쇼조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해 어떤 인식을 보였을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메이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청국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하였을 뿐 아니라, 외무성 산하의 외교관, 영사관 소속의 경찰, 육군성과 해군성 산하의 무관 등을 대거 파견하여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여기에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그리고『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 등을 비롯한 중앙지와 지방의 신문사에서도 특파원을 대거 파견하여 조선에서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취재에 열을 올렸다.[26]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 내 상황은 '동학당'을 비롯한 조선관계 기사와 소문 등이 넘

25)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은 음력 6월 21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 당초부터 은폐에 급급하였다. 경복궁 불법 점령 사실의 진실은 100년이 지난 1994년에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사료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 (中塚明,『歷史の僞造をただす』, 東京: 高文研, 1997.)

26) 동학농민혁명 당시 특파원을 파견한 일본의 신문사 및 잡지사는 66개사, 특파원 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원만도 129명에 달하고 있다.

칠 대로 넘쳐 나고 있어서 관민 관계없이 누구든지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야당인 자유당의 유력한 지도자의 1인이었던 코노 히로나카(河野廣中, 1849-1923)가 조선의 '동학당'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그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27]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중의원 의원 신분이던 다나카 쇼조 역시 조선의 '동학당' 즉 동학농민군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쇼조가 동학농민군에 관한 소식이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보를 1894년 당시 이미 접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는 이유는 그가 1896년에 남긴 「조선잡기(朝鮮雜記)」라는 글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글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잡기」에 들어 있는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관한 기술을 인용한다.

> 봉준 자는 녹두, 부하 3천 있다. 동학당 중에 혹 잔폭한 자가 있지만 모두 녹두를 존경하여 전대인(全大人)이라 칭하니 동학당의 숨은 태두이다. 당원은 대략 10만으로 녹두는 품행방정(品行方正)하며, 부하라 할지라도 술과 담배를 마시거나 피지 않는다.(실제로 동학교단에서는 당시 어육주초를 금하고 있었다 - 인용자 주) (세상이 비록 - 인용자 주) 모략이 많다고 할지라도 녹두는 공명정대(公明正大)로써 몸소 개혁의 업(業)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녹두의 뜻은 종교(宗教一東學; 인용자 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28]

> 동학당(東學党 - 동학농민군; 인용자 주)은 문명적(文明的), 12개조의 군율은 덕의(德義)를 지키는데 엄격하다. 인민의 재산을 빼앗지 않으

27) 동학농민혁명 당시, 코노 히로나카가 입수한 조선 '동학당' 관계 정보는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의 코노 히로나카 관계 문서 목록 안에 들어 있다.

28) 由井正臣、小松裕 編、『田中正造文集(一)』、東京: 岩波書店、2004、p.138.

> 며, 부녀자를 욕보이지 않는다. 그 병참부의 쓰임은 나라와 군아의 재물에 의지하고, 군대로써 권력을 취한다거나 재산을 취한다거나, 각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평(公平)하며, 간혹 군율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총살한다.[29] (고딕은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나카 쇼조는 「조선잡기」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에 대해 '품행방정' '공명정대'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고, 12개조 군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던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문명적'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극찬하고 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한 다나카 쇼조의 이 같은 평가는 메이지 일본인 가운데는 매우 이례적이다. 어떻게 그 같은 평가가 가능했을까? 이에 대하여 다나카 쇼조 연구자인 미우라 카즈오(三浦一夫) 씨와 이다 스스무(飯田進) 씨는 "1896년 4월 경부터 다나카 쇼조의 조선인식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와는 달리 분명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30] 필자는 미우라 씨와 이다 씨의 견해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점에서는 인정하지만, 다나카 쇼조가 젊은 날에 걸어왔던 삶의 궤적, 즉 에도말기의 민초들의 신산한 삶을 목격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영주와 현령의 폭정에 저항했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종래 다나카 쇼조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민중사상가'인 다나카 쇼조의 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선 민중들의 열망이 결집되어 나타난 동학사상을 비롯하여 그 지도자 전봉준과, 악정을 개혁하기 위해 떨쳐 일어났던 동학농민군의 지향을 '직시(直視)'할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

29) 由井正臣、小松裕 編、위의 책、p. 137.

30) 三浦一夫、飯田進 編、『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本國憲法 田中正造のアジア認識』, 東京: 下町總研、2008, p. 129.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5.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는 '서세동점'의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과 메이지 일본이라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살다간 나라와 지역은 비록 달랐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닮은 점이 대단히 많았다. 지방의 가난한 농민(또는 평민)으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가장 낮은 자리의 민중들의 생명과 생활, 생업을 위해서 앞장서서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의 대가로 가혹한 탄압을 받고 투옥 생활을 경험한 것, 국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고통과 수난을 당하고 있던 민중들을 위하여 악정을 개혁하고자 애를 쓴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의 소중한 생명과 생활, 생업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일관되게 지켰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라 하겠다. 바로 이 같은 양자의 공통점을 묶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한결같이 '공공적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아닐까?

전봉준에게 나타난 '공공적 삶'의 구체적 사례를 보도록 보자. 그는 동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로써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가 '보국안민(輔國安民)'이고, 다른 하나가 '수심경천(守心敬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국안민'의 '보국(輔國)' 두 글자이다. 전봉준은 '보국(報國)'도 아니고, '보국(保國)'도 아닌, 바로 '보국(輔國)'을 하고자 목숨을 걸고 '혁명'을 지도했다. 여기서 전봉준의 '보국'은 '안민(安民)'을 저해하는 국가, 즉 '기민(棄民)'이나 '학민(虐民)'을 일삼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전봉준의 동학농민혁명의 지향점, 즉 그 공공적 성격이 선

명하게 드러난다.[31] 전술했듯이, 전봉준은 동학 교조신원운동(1892년 음력 11월의 삼례집회) 단계부터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는데, 교조신원운동은 당시 조선왕조의 법전인『경국대전(經國大典)』속에서 형사법을 규정하고 있는「형전(刑典)」에서 허용하고 있던 '신소(申訴)' 제도에 근거한 합법적인 청원운동이었다. 이 청원운동을 통해서 전봉준 등은 '동학 교조의 신원(동학의 공인), 지방관들의 가렴주구 금지, 척왜양' 등의 세 가지 요구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에 청원하였는데, 이들 요구 역시 '안민'에 직결되는 '보국(輔國)'을 위한 청원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며, 합법적 청원의 형태로 189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례, 서울 광화문, 그리고 다시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원평 등지에서 전개된 '교조신원운동' 또한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근거한 '안민'을 위한 '보국'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공공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봉준에 있어 가장 극적인 '공공적 삶'은 그가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농민봉기와 동년 3월의 제1차 동학농민혁명(제 1차 봉기), 그리고 같은 해 9월의 제 2차 동학농민혁명(제 2차)을 지도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 행위야말로 '기민'과 '학민'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안민'이라는 천명(天命)을 저버린 조선왕조에 대한 진정한 '보국(輔國)'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 과정에서 전봉준이 강조했던 12개조 군율은 다나카 쇼조마저 '문명적'이라고 격찬했는데[32], 바로 그 12개조 군율의 이념적 지향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더욱 극찬할 만한 내용을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서 필자가 찾

31) '보국안민(輔國安民)은 원래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가 1861년에 쓴「포덕문(布德文)」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1894년 음력 3월 20일에 조선 각지에 포고한 전봉준의「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전봉준공초』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32) 由井正臣、小松裕 編、앞의 책、p. 137.

아낸 바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33]

> 동도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첫째 - 인용자 주)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으며, (둘째 - 인용자 주)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진실로 적의 목숨만은 해치지 아니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셋째 - 인용자 주) 농민군 대열이 행진하며 지나갈 때에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넷째 - 인용자 주) 효제충신의 인물이 살고 있는 마을 10리 안에 주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 (東道大將下令於各部隊長約束曰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刃而勝者爲首功 雖不得已戰 切勿傷命爲貴 每於行軍所過之時 切勿害人之物 孝悌忠信人所居村十里內 勿爲屯住)

이 내용을 필자는 '신(新) 4대명의'라 명명하고자 하는 바, 이 '신 4대명의'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목숨,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안민'을 저해하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즉 '보국'을 위해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존재 의의는 바로 국가의 잘못에 의해 시달리고 있던 민중들의 생명과 생활, 생업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절대로 해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동학농민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신 4대명의'야말로 동학농민군의 지향, 동학농민혁명의 '공공적' 성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다나카 쇼조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적 삶'의 특징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다나카 쇼조는 전봉준과는 달리 이른바 서구문명의 직접적 영향 하에 '자유민권운동가'로서 활동한 경험

33)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朝鮮國 東學黨 動靜에 關한 帝國公使館報告一件』, 문서번호 5문 3류 2항 4호).

이 있다. 따라서 다나카 쇼조는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공공'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자신 '공공'이란 말을 널리 사용했다. 그는 38세인 1878년에 "일신으로 공공(公共)에 진력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굳혔다고 한다.

> 첫째, 이제부터는 '공공'을 첫째로 생각하여 '자기 영리적'인 사업을 위해서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둘째 번 돈은 '공공을 위한' 운동에 매년 1백 20엔씩 35년간에 걸쳐서 사용한다. 셋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양자로 맞이한 남녀 두 아이를 상당한 교육을 시킨 후에 다른 이에게 준다.[34]

이처럼 30대부터 이미 명확하게 '공공'을 인식, 이해하고 있었던 다나카 쇼조는 구회(區會) 의원 시절부터 중의원 의원이라는 국회의원 시절 내내 '공공'을 화두로 삼고, '공공'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다나카 쇼조에 있어 '공공'이란 "국가와 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써 "사회이며 사회민인(社會民人)"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공공의 사무'란 "지역주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뜻했다.[35] 다나카 쇼조는 1890년에 중의원 의원에 당선된 이래, 1913년 9월에 서거하기까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일상생활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 그 자신이 말한 '공공'을 위해 헌신했다. 국회에서, 지역의 피해 현장에서 '공공'을 위한 다나카의 활동은 단 한 순간도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되었고, 그 같은 활동은 마침내 1900년의 "망국에 이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망국이란 요지의 질문서" 제출과, 1901년 목숨을 건 천황에 대한 '지키소(直訴)'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동학농민혁명 지

---

34) 小松裕, 金泰昌 編, 앞의 책、p. 7; 씨알사상연구소 편, 앞의 책, p. 228.
35) 씨알사상연구소 편, 위의 책, p. 229.

도자 전봉준이 '기민'과 학민'을 일삼음으로써 '안민'이란 천명을 저버리고 있던 조선왕조의 '보국'을 위해 교조신원운동과 고부농민봉기, 제 1-2 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면서까지,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천황에게 '지키소'를 하면서까지 다나카 쇼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코마츠 히로시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다나카 쇼조는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과 '야나카 마을 문제'라고 하는 한 지역의 문제를 일본이라고 하는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사건'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은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광업(공업)과 농업의 충돌문제라는 것이었지만, 이 같은 인식으로부터는 광업 이익과 농업 이익 어느 한 쪽을 우선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식 해결법 아니면 기껏해야 그 양자를 조화시키는 식의 해결법밖에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쇼조는 그 문제를 '공익(공공의 이익)'의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36]

요컨대, 다나카 쇼조의 삶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리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생명'을 압살하는 국가체제에 맞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생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다나카 쇼조의 삶에 대해 '교토포럼'을 통해 '공공철학'을 정립하고 그 보급에 진력해 온 김태창 박사님은 "공공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실례가 아니겠는가"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37]

---

36) 小松裕、金泰昌 編、앞의 책、p. 11; 씨알사상연구소 편, 앞의 책, pp. 236-237.

37) 小松裕、金泰昌 編、위의 책、p. 3.

6. 맺음말 -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의 사상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가 공통적으로 살았던 19세기말은 '서세동점' 즉, '유럽의 제 3세계 지배, 문화 파괴와 말살,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 그리고 자기들 방식의 강요, 착취, 억압, 세뇌'가 조선과 메이지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대였다.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는 나라도 다르고, 살다 간 지역도, 삶의 궤적도 달랐지만 서로 닮은 부분이 많다. 시골의 가난한 평민(농민)으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가장 낮은 자리의 민중들이 겪는 고통에 눈을 돌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초래하는 잘못된 국가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중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굽힘이 없이 그 실천을 계속한 것도 똑 같다.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은 바로 '공공(公共)적 삶' 다시 말해 '공공하는 생애'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봉준과 다나카 쇼조에 대해 첫째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둘째 두 사람의 생애, 셋째 두 사람의 상호인식, 넷째 두 사람의 '공공적' 삶의 특징 순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두 사람의 '공공적 삶'을 통해 '우주적 공공성'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전봉준의 '공공적 삶'은 동학 입도로부터 시작되는데, 전봉준은 동학의 '수심경천'과 '보국안민' 사상에 특별히 공감하여 입도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국안민'이야말로 전봉준의 '공공적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상이었다. '보국안민'에 근거한 전봉준의 '공공적 삶'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삼례집회는 '교조신원운동'의 일환으로써 합법적 청원운동을 통해 동학이 내세운 '보국안민' 즉 '국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민중들의 생명, 생활, 생업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보국안민'의 실현은 전봉준이 목숨을

걸고 실현하고자 했던 '공공적 삶'의 목표였으며, 그것은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94년 1월의 고부농민봉기, 1894년 3월의 제 1차 동학농민혁명, 동년 9월의 제 2차 동학농민혁명 단계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한편, 다나카 쇼조는 20대 때부터 이미 영주나 현령의 폭정에 항거하여 개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8세 때에는 "일신으로 공공에 진력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공', 즉 사회와 사회 여러 사람을 위한 일에 뛰어들었다. 특히 '자유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지역 주민의 생명, 생활과 생업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제도나 정책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즉 젊은 시절부터 다나카 쇼조는 '공공적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다나카 쇼조의 '공공적 삶'의 결정판은 그가 중의원이라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에 일어난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 해결에 참여하면서부터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피해'는 '문명개화' 노선을 지향하고 있던 메이지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가 광역화하고 장기화되었는데, 다나카 쇼조는 1901년에 중의원 직을 사직할 때까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메이지 일본 정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메이지 일본 정부는 다나카 쇼조의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자 다나카는 중의원 직을 사직하고, 천황에게는 목숨을 건 '지키소'를, 그리고 피해민과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며 그들 피해민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72세의 나이로 피해민 구제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을 계속하다가 서거했다. 그가 '아시오 구리광산 광독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력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참된 문명은 산을 황폐하게 하지 않으며, 강을 더럽히지 않으며, 마을을 파괴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 오늘날의 생태계의 파괴,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빈부의 격차, 민족 대 민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격차의 심화, 인간의 신경질환 즉 내부 분열, 자기 자신의 정신 안에 축적되어 있는 자기 생의 총체와 자기 활동의 현재 내지 지향과의 완전한 분리 --- 결국 이런 것들이 각종 각양으로 여기저기서 심화되어 온 것이 오늘날의 비극의 총체, 모순의 총체인 것이다. 이것은 역사 전체의 타성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소위 '물질주의', '유물주의'라고 부르는 물신숭배, 이른바 페티시즘(Fetishism)이라고 부르는 세계 지배문명이 드러내고 있는 양상의 특징이 아닌가.[38]

현존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계약' 만으로는 현실세계와 지구혼돈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안에 포함하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생명 계약'에 눈을 돌림으로써 새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공공성(公共性, Publicity)과 공심(公心)의 문제다. '사회계약'이 인간과 인간의 마음 사이의 소통에 의해 성립되는 공공성이라면, '생명계약'은 인간과 자연의 마음 사이의 소통과 일치에 의해 성립되는 우주적, 생태적 공공성, 천지공심(天地公心)이다. 자연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주의 주재인 신(神)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과 신의 마음의 소통, 일치 문제가 된다. 거기에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사이의 소통, 일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39]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 하, 1971.

---

38) 김지하, 앞의 책, p. 88.
39) 김지하, 『김지하의 예감』, 도서출판 이룸, 2007, p. 496.

김지하,『김지하의 예감』, 도서출판 이룸, 2007.
김지하,『일하는 하늘님』,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84.
씨알사상연구소 편,『씨알철학과 공공철학의 대화: 모색』, 도서출판 나녹, 2010.
최병현,『남원군 동학사』, 1924.
최제우 지음, 박맹수 역,『동경대전』,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小松裕、金泰昌 編、『公共する人間 4 田中正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2010.
中塚明、『歷史の僞造をただす』、東京: 高文研、1997.
由井正臣、小松裕 編、『田中正造文集(一)』, 東京: 岩波書店、2004.
三浦一夫、飯田進 編、『東アジア共同体構想と日本國憲法 田中正造のアジア認識』, 東京: 下町總研、2008.

“The Life of Publicness” of General Nokdu, Chun Bong-Jun and Tanaka Shōzō

- As an Example to Comprehend Modern Period of Korea and Japan

Park, Maeng-Su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Chun Bong-Jun(1855~1895) in Korea and Tanaka Shōzō(1841-1913) in Japan lived was the age of “Western Impact”. The european domination on third world countries, obliteration and destruction of culture, political/economical/social domination, oppression and brainwashing of self-centered way were rampant in East Asia such as Joseon Dynasty and Meijin Japan. Although Chun Bong-Jun and Tanaka Shōzō differs in nationality, residential area, and trajectory of life,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were born into a poverty-stricken farmers, grew up to pay attention to the agony of humble people, and stood against the iniquitous systems or practices which had caused distress of the people. It is much the same that they shared the misery of the people, devoted themselves to eliminate fundamental causes of the misery, and remained firm in their believes to the death. The trajectory of their lives is “the life of publicness”, in other words, the life for the public sake itself.

This research reviewed the lives of both Chun Bong-Jun and Tanaka Shōzō in the following orders: the periods of both lived in, the lives of both figures, interactive recognition of bo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life of the publicness” of both. This paper ended the research with exploration of “universal publicness” through lives of the public sake of both historical figures.

Key words: Chun Bong-Jun, Tonghak, Tanaka Shōzō, The life of publicness, universal publicness

이 논문은	2013년	12월	01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